

연말 송년회 대목인데... 자영업 '비명', 주류업계 '한숨'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비상' 주점 등 유흥시설 5종 영업중단 일반식당도 저녁 술 판매 불가능

주류 판매량 지난해 반토막 전망 업계 "현실적 대책 마련" 목소리



지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재시행되면서 외식·주류업계에 준비가 걸렸다.

크리스마스와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가장 활발한 시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강화된 터라 매출 직격탄이 예상된다. 통상 연말에는 유흥용 주류 매출이 20~30% 가량 늘어난다. 하지만 거리두기 2단계에는 유흥시설은 영업을 중단되고 음식점 내 취식 가능 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주류판매가 불가능해진다.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

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최악의 경우 주류 판매량이 12월에 성수기 효과를 넘어 전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는 이번 성수기를 놓칠 경우 올 상반기 중 납부한

400억원 안팎의 법인세 과징금을 상쇄하기 어려워지면서 2년 연속 순이익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상반기 맥주 '테라'와 소주 '진로이즈백'을 출시한 하이트진로도 코로나19 및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출시 초기 대규모 마케팅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외형성장기회를 놓치고 있다. 올 3분기 가정용을 중심으로 깜짝 흑자를 낸 롯데칠성음료 주류 부문도 연말 마케팅을 통해 흑자규모 확대를 기대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 반등세 유지가 어려워졌다.

주류업계는 이번 성수기를 놓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구조를 변화하고 있다. 유흥시장항 비용을 줄이고, 가정용을 중심으로 매출이 일부 회복된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코로나가 장기화하더라도 순이익 감소를 막을 수 있도록 수익구도를 개편하고 있는 것. 하지만 결국 시장 파이가 작아지는 결과는 막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주류업계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외식업계의 경우 속수무책으로 코로나 거리두기 정책에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제한되는 일반식당의 경우 저녁 주

류 판매를 할 수 없다. 주류판매는 객단가가 높아 일반 식당의 주요 수입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수입원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배달로 서비스를 확대하더라도, 배달의 경우 가게에서보다 주류소비가 현저히 적어 매출 손실을 매꾸기엔 부족하다.

지난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이미 정부 대출금 지원, 등 사실상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한 상태.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66조원으로 한 달 새 3조원 넘게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적인 비상상황이기에 거리두기 격상에는 동의하지만, 송년회 등 연말 회식 수요가 몰리는 시기라 실질적인 피해 정도는 다른 시기에 비해 더 클 것"이라면서 "현실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한국의 인공태양 '케이스타'

대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내 한국의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케이스타'(KSTAR) 주장치. 케이스타는 땅 위에서 태양과 같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이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케이스타가 핵융합 발전 최적 온도인 섭씨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20초 동안 운전하는 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코로나 속 보험사 실적 선방... 누적 순익 ↑

9월까지 순익 5.5조... 6.1% 증가 생보사, 저축성보험이 실적 견인 손보사, 화재 손실폭 둔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보험사들의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는 저축성 보험이 효자노릇을 했고, 손해보험사는 코로나19로 자동차·장기보험 손실이 감소한 덕을 봤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1~9월 당기순이익은 5조57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95억원(6.1%) 증가했다.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15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6억원(3.1%)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익은 줄었지만 저축성보험의 영업실적이 좋아 보험영업손실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42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9억원(10.2%) 증가했다.

〈보험사 손익 현황〉

구분		'19.1~9월	'20.1~9월	증감률
생보사	당기순이익	30,569	31,515	3.1
	보험영업익	▲180,458	▲176,375	손실 축소
	투자영업익	186,677	185,693	▲0.5
	영업외이익	33,621	31,259	▲7.0
손보사	당기순이익	21,983	24,232	10.2
	보험영업익	▲37,253	▲31,825	손실 축소
	투자영업익	67,452	66,040	▲2.1
	영업외이익	▲538	▲1,071	손실 확대
합계	52,552	55,747	6.1	

단위: 원, % /금융감독원

손보사 역시 이자수익은 줄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 사고나 병원진료가 감소하면서 보험영업손실이 더 큰 폭으로 줄었다.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152조42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2975억원(5.0%) 증가했다.

총자산이익률(ROA)은 0.59%로 전년 동기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5.47%로 전년 동기 대비 0.2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총자산은 1291조6306억원으로 전년 동월 말 대비 68조

238억원(5.6%)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영업여건 및 투자환경 약화로 보험회사의 장기 수익성, 재무건전성의 동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변동성과 과도한 영업경쟁, 대체투자자산 부실화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IFRS 17 도입 대비 및 변동성에 대한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인 자본충실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직장인 올해 평균 49일 재택근무 했다

인크루트 직장인 설문

재택근무 일수 대기업 > 중견 > 중소기업 10명 중 9명 "이번 달에도 적용해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직장인 대부분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선제적 재택근무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직장인 748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9명이 "3차 대유행 확산일로 회사측 선제적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올해 재택근무 진행 실태 조사에서 '재직중인 회사가 거리두기 단계 및 정부의 권고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했는지' 묻은 결과 이에 '그렇다'(55.1%)와 '아니다'(44.9%)로 확인됐다.

기업의 재택근무 실시노력에 대해 절반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기업별로는 대기업이 82.1%로 실시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63.4%)과 중소기업(43.8%)로 차이를 보였다.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실시비율이 대기업의 절반에 그친 것.

업종별로는 ▲여행·숙박·항공(80.0%) ▲모바일·게임(75.0%) ▲인터넷·IT·통신(67.7%) 순으로 재택 실시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건설·건축·토목·환경(33.9%) ▲제조·생산(39.4%) ▲의료·간호·보건·복지(47.3%) 업종 재직자들은 회사의 재택근무 실시에 낮은 점수를 줬다.

응답자가운데 실제 올해 재택근무 경험에 있는 비율은 53.9%였고, 이들이 올해 집에서 근무한 날은 평균 49.1일로 집계됐다. 기업별 재택근무 일수로는 ▲대기업 62.3일 ▲중견기업 55.7일 ▲중소기업 50.2일로 각각 파악됐다.

한편, 이달 중으로라도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중 88.3%는 찬성했다. 24일 0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됐다. 설문시점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전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거리두기 시행에 앞서 회사의 선제적 대응을 바라고 나섰던 것.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의 조짐에 직장인 대부분은 출퇴근 및 사무실 근무 등 대면활동에 우려를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현진 기자 ihj@

백신 개발 완료시 즉시 대량생산 가능

>> 1면 'SK바이오사이언스'서 계속

안동 L하우스 공장 세계 최고 수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7월 아스트레제네카가 임상3상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원액과 완제에 대한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아스트라제네카와 3자 협약을 맺으며 국내 공급에 협력하겠다는 데 합의했다"며 "복지부와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 원할

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공장 안동 L하우스도 백신이 개발 완료되는 즉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힌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는 "글로벌에서 최초로 출시되는 백신보다 다소 늦더라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실하게 검증된 코로나19 백신을 만든다는 게 우리의 목표"라며 "법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성공 가능성을 차츰 높여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금리인하요구권 안알리면 보험사 1000만원 과태료

앞으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보험회사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금융회사로 규정된 반면 보험법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발기인, 이사 등으로 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나유리 기자 yu115@